



## 요한 2

요한복음 2  
Tape #8070  
By Chuck Smith

이제 요한복음 제2장을 봅시다.

지난 주에 살펴본 제1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이어졌는데,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좇으라고 종용하였다. 그것이 제1장에 나오는 제자들 규합의 초기 내용이었다. 그 마지막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식의 말씀을 나dana엘에게 주셨을 때 그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나dana엘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이런 의미였다: 형제여 좀더 두고 보라. 아직 볼 것이 많이 남아 있다. 여기까지가 제1장의 끝이었다. 장차 너는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분이 언급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가 하늘로 놓여진 것을 야곱이 꿈속에서 본 일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였다: 나는 사닥다리다. 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게 된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더라(요 2:1).

갈릴리 가나는 나사렛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조그만 동리인 나사렛을 떠나 계속 가다 보면 낮은 언덕을 만나게 된다. 그 언덕을 넘어가면 갈릴리 지역인데 거기 가나가 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갈릴리 바다로 가는 길목에 있다.

거기서 결혼식이 있었다. 당시의 문화로 보면, 결혼식은 언제나 화려하고 대단한 예식이었다. 오늘날 우리의 결혼식과는 달리 그것은 정말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오해 기간 동안 지속되는 축제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아 거기 참석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초청을 받았다(2:1,2).

그들은 모두 이 특별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사람들이 한참 흥에 취해 있을 무렵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술이 떨어졌다고 말했다(2:3).

이로 보건대 마리아는 자신의 자들이 누군지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분이 태어나기 전 천사가 그녀에게 전한 말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녀를 선택하여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고자 하신다. 그런데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성령께서 직접 그녀를 잉태 시키실 것이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며 다윗의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해주는 천사에 의하면, 태어날 아들은 진정 메시아라는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그분이 자라시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분은 이제 어른이 되었다.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불러모으기 시작하셨다. 나는 당시 마리아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적 능력을 좀 과시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성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마리아에 대해 약간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아이가 너무 일찍 출생하였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나오겠지만, 한번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은근히 비방하였다. 그들은 우리는 간음이나 혼외 정사를 통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예수님을 빗대어 한 말이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시 마리아가 자신을 방어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모든 이들이 인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마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려진 의도는 와서 그 집 주인을 도와달라는 청구였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하고 말했다(2:4).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는 관계가 먼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친근한 사람을 칭하는 말이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 즉 자기 어머니가 저 아래 요한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사용한 말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 때 예수님은 여자여 이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듯 이 단어는 친근한 사람에게 사용하는 애칭이었다. 오늘날 영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약간 관계가 소원한 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을 뿐이다. 만일 여러분이 자기의 아내를 여자여 라고 부른다거나 어머니를 여자여 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관계가 소원한 것을 의미하겠지만,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 사용된 희랍어는 다정스럽고 애정 섞인 표현이다. 아마도 이 표현을 귀하신 어머니 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듯 이 단어는 따스하고 애정이 담긴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못하였습니다(2:4).

예수님은 때에 대한 감각이 지극히 예민한 분이셨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도래할 날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그 날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483년 후의 일이 될 것이다. 그 날은 이스라엘 나라에 메시아를 계시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받드는 선부른 운동이 일어날까 봐 매우 조심하였다.

그래서 그분은 조심스럽게 페달을 밟으셨다.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그분은 공중이나 대중 앞에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으셨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입성 시에는 도무z 당당히 나아가셨으며 입성 직전에는 용의주도하게 준비하셨다. 그분은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를 가져오도록 하셨는데, 이는 스가랴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슥 9:9).

제자들은 그것이 메시아 노래인 줄을 알고 메시아 찬양 시인 시편 118편을 인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감람산을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여호와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와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시 118:26) 라고 하며 메시아 노래를 불렀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다: 주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당신은 저들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십니까? 저것은 불경스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눅 19:37-40).

그런 식으로 지내시면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러므로 어머니, 지금은 너무 이르며 너무 빠릅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제7장에 의하면, 요한은 그분이 서너 번에 걸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선언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제8장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제12장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제12장에 이르면 어감이 약간 바뀐다. 그분은 때가 가까웠다 고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제17장에 이르면, 자기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되셨음인지 그분은 아버지여 때가 도래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시게 된다. 그분은 계획된 시간에 대해 매우 민감하셨으며 매우 깊이 인식하고 계셨다.

제20장에 이르면, 예수님은 이 책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이적들도 행하셨다고 요한은 전한다. 요한의 말은 이렇게 이어진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한 20:31). 혼인 잔치의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 요한이 선택한 최초의 이적이었다. 그는 지난 주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다고 전하였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한 여러 증인들을 우리 앞에 제시할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요한이 특별히 선택한 여러 이적들이 제시될 것이다. 요한은 갖가지 이적을 제시하려고 무진 애를 쓴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는데,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말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요한 21:25).

요한은 신중하게 이적을 선택을 하였는데, 가나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 요한이 선택한 첫 번째 이적이었다. 거기서 예수님은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셨다. 그 때 그분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어머니, 내가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로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 저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2:5).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을 잘 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 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었다(2:6),

그 돌 항아리들은 정결 예식을 위한 것들이었다.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하였다. 물을 대야에 담은 후에 정지된 물로 씻어서는 안 되었다. 그런 물로 씻으려면 물을 부으면서 씻어야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큰 항아리들을 준비해 놓고 물을 담아두었던 것이다. 물을 퍼 가지고 가서 쏟으면서 씻기 위함이었다. 언제나 흐르는 물로 씻어야 정결케 되었다.

그 항아리들은 하나가 두 세 통 드는 것들이었다(2:6).

한 통은 9갤런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물통 하나는 18-27 갤런 드는 것이었다. 따라서 평균을 내 보면, 그 여섯 개의 물통에는 대략 120갤런의 물이 들어간다고 하겠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통들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셨다. 그들은 아구까지 채웠다(2:7).

나는 이 구절을 좋아한다. 뭐든지 충분히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넘치도록 채워라. 만일 주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게 좋다. 반쯤만 받아들이고 중단하지 말라.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하라.

주님은 그들에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셨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2:8).

나는 그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였을지 궁금하다. 포도주는 떨어지고, 이제 물을 퍼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야 하다니 말이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2:9,10).

너는 일을 거꾸로 하는구나. 그렇지 않니? 대개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는 법인데 말이야. 뭔가를 좀 먹고 나면 사람의 미각이 약간 흐려져서 이전처럼 그렇게 예민하지 못하게 되는 법이지. 그러므로 고급 음식점에서는 식사 도중에 가끔 과즙 음료를 내놓아서 손님들의 구미를 돋구는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음식이 나왔을 때 그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미각이란 오래 사용하게 되면 예민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포도주를 마실 때도 마찬가지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아야 한다. 손님이 약간 취하게 되면 미각이 흐려지게 되고 그럴 때면 물론 값이 싼 것을 내놓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나중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자 연회장은 놀랐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이적은 최초의 것이었다(2:11).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역의 시작이었다. 물론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이적이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다니 말이다.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분의 권능이 여기서 현시되었다. 자연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났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2:11).

이것은 시작이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하였는데, 그런 운동이 이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 운동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 죄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지속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분께 영광과 영예를 가져다 줄 것이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북안(北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2:12),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의 제자들과는 별도로 언급되고 있음에 유의하라. 성서에 의하면, 예수님께는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이 수 명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야고보, 유다, 시몬이 예수님의 형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여동생들도 등장한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나서 이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말했을 때 그들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그의 형제들이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그분으로 인해 분개한 것은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탓이었다. 바로 그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마 13:57).

그들은 거기서 여러 날 거하지 않았다(2:12).

하지만 그분은 훗날 가버나움을 자신의 사역의 거점으로 삼으셨다. 이곳은 예수님 활동의 중심이 될 곳이었다. 그분이 갈릴리 전역을 돌면서 사역하실 때, 가버나움은 그분께 본거지와 본부 역할을 하였다. 어쨌든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가서 일들을 정비하였으며, 거기서 잠시 동안만 머물렀다.

그 후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2:13).

예수님은 유대인 성인 남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모세의

법을 준수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유월절에 참석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분은 어렸을 때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으시다. 그분이 12세 정도 되셨을 때 부모 손에 이끌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 일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이다. 그분은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기도 하셨다. 하눅카 즉 겨울철 축제에 참석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적도 있다. 이렇듯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절기들을 지키곤 하셨다.

그분은 성전으로 들어가셨다(2:14).

여기서 사용된 “성전”이라는 단어는 안쪽 뜰이 아니라 바깥 뜰을 가리키는 말이다. 안쪽 뜰을 가리키는 희랍어는 따로 있다. 여기서 사용된 “히에론”이라는 희랍어는 바깥 뜰을 일컫는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뜰이기도 하다.

이 뜰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앓아 있었다(2:14).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을 시장터로 만들었다. 예로부터 내려온 이런 관행은 대체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일종의 영업권이였다. 그 대신 대체시장은 희생제물로 사용된 동물의 판매 대금과 환전 요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챙겼다.

여호와께 드릴 희생제물을 구입하려면 그 동물이 흠 없는 것이어야 하였다. 하나님은 아무런 동물이나 다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온전치 못한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와서는 안 되었다. 먹다 남은 것을 드려서도 안 되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였다. 그것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으로서 희생제물로 쓰기에 합당한 것이어야 하였다. 성전 안에서는 이미 그런 검사를 통과한 동물을 팔고 있었다. 여러분이 만일 어떤 동물을 가지고 온다면 제사장은 그것에 흠이 없는지를 검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온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만약 흠이 있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을 희생제물로 드릴 수는 없었다.

어떤 사람이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가족과 함께 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할 경우 제사장이 그 제물을 살펴 약간의 흠이 발견되면 그것을 거부하곤 했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여기 여러분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러 왔다고 가정하자. 한 어린 양을 가져왔는데 거부를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짐승 파는 이에게로 가서 이미 검증을 끝낸 양을 사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미리 인증을 받은 제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값을 배나 치러야 할 것이다. 이미 인증을 받아 놓은 비둘기도 살 수 있을 것이지만, 역시 아주 비싼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곤 하였다. 로마 황제의 화상이 있는 동전은 하나님께 헌물로 드릴 수가 없었다. 그런 화상은 불경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성전 헌물로는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돈 바꾸는 이들이 필요하였다. 그들은 성전 헌물로는 사용될 수 없는 로마 동전을 받은 후에 그것을 성전 화폐 즉 은 세겔로 바꿔주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시 아주 큰 금액의 환전료를 내야 하였다. 그 비용이 원금의 25% 정도는 되었을 것인데, 물론 그 차액은 환전상들의 몫이었다.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 몇 가지가 있었다. 첫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의 심정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치부를 했던 것이다. 종교를 빙자하여 폭리를 취했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서신에서 경건을 치부나 돈벌이의 수단으로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고 있다. 그들은 경건을 이용해서

개인적 이익을 챙기고 있으니(딤후 6:5), “그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기인하는 두 번째 문제점은 안이한 신앙 자세를 가져온다는 점이었다. 대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인생 사 편리했다. 양 우리로 돌아가서 다시 양 한 마리를 끌고 온 종일 걸어오지 않아도 되었다. 그건 참 편리한 제도였고 안락한 관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2:15).

아마도 그것은 판매 용 소를 묶어 두었던 채찍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둘러보시다가 소들을 붙들어매었던 노끈을 발견하시고는 그것을 갖다가 채찍을 만드셨을 것이다.

그분은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엮으셨다(2:15).

예수님을 겹쟁이로 만들고 싶어하는 소심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분이 아무와도 다툰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은 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것이다. 나는 그분이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 여기 한 청년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왜 저를 제지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분이 거칠었다고 생각한다. 그분이 험악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구역질 나는 일을 보았을 때, 그분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 곳을 헤집고 다니면서 상과 돈을 둘러엮으셨다. 여러분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 사람들이 합심하여 그분에게 대항했으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돈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다니 이게 무슨 추태인가? 사람들은 그 돈을 주우려고 앞 다투어 달려들었다. 그분은 소들을 내어쫓으며 소와 양을 파는 자들을 내어쫓기 시작하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고 명령하셨다(2:16).

이것은 예수님 사역의 아주 초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요한이 선택한 두 번째의 표적이었다.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다. 그리스도 사역의 말기의 마지막 주간에, 아마도 그분이 도무z 당당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에, 그분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한 번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성전 청결케 하는 일을 공생애 초기에 한 번 하시고 공생애 말기에 한번 더 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성전을 깨끗케 하심으로 성전 안에서 일상화 되어 버린 상업 행위를 금지하셨던 것이다.

“내 아버지의 집.” 그들 모두는 이 말이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것이며 따라서 성전을 깨끗케 하신 그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제자들은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다(2:17).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훼방하는 훼방이 내게 미쳤나이다(시 69:9).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였다(2:18).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어 네가 여기서 행한 일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겠느냐? 너는 이 건물이 네 아버지의 집이라고 주장하는데 그에 대한 무슨

표적이라도 있느냐? 물론 그분은 그 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시키고 계셨던 것이다. 자아,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내보여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겠느냐? 이것이 네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입증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2:19,20).

요한은 물론 제1세기 말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2:21,22).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가리켜 성전이 아니라 장막이라고 했다. 성전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보다 더 영구적인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장막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보다 더 일시적인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이 천막에 대해서 말할 경우, 천막은 일시적인 종류의 것이다. 그것은 한두 주의 휴가 기간에 사용하기에는 좋으나 오래 사용하기에는 합당치 못하다. 여러분은 천막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방금 천막을 새로 사왔으니 공원에다 그것을 치고 거기서 살림을 차려야 하겠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영구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시 한 번 우리 몸을 천막에다 비유하였던 것이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후 5:1-8).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바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몸은 우리의 진실한 자아가 아니라는 것이다. 몸은 우리가 잠시 거하는 장막일 뿐이다. 진실한 자아는 영이다.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기묘하게 만들어진 도구이다. 그 도구를 사용하여 내 영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내게 만일 순수한 영만 있고 몸에 없다면, 나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여러분에게 몸이 없다면 여러분은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이다. 우리는 몸의 중개를 통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다른 사람이 그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느끼고 있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에게 전해줄 때 나는 비로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나는 그 사람을 인식하며 존중하기 시작한다. 사랑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몸을 매개자로 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런 의미 있고 사랑스러운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언제나 몸을 인격과 연관 지어서 보기 때문에, 몸과 분리된 인격을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사실 진실한 나는 영인 것이다. 이 몸은 단지 천막일 뿐이다. 이것은 빠져거리며 날아지다가 구멍이

뚝리고 헤어져서 너털거리게 된다. 잠시 잠깐 후면 나는 이 장막을 벗어 던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서글퍼 하지 말라. 나는 대궐 같은 집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건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말이다. 나는 이 장막에 대해 감사 드린다. 이 몸을 경이롭게 조성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나는 하나님의 빼어난 솜씨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렇지만 나는 그 하늘에 있는 건물을 사모한다. 내 영이 거할 영원한 처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 천막을 벗어나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에 해당할 뿐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요한 14:2). 그분이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것은 새로운 장막이다. 언젠가 나는 그리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 여러분은 내 주소가 바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천막에 살고 있지 않다는, 하나님의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내가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거기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전 15:51,52). 우리가 변형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이 천막으로부터 주택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그리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재회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한 14:2,3). 아주 매우 가까운 장래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며, 이 제한적인 천막으로부터 주택으로,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의 건물로 이주할 날을 기대하고 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칭하셨다. 천막이라고 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킨 말이었다. 예수님이 메시아며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라는 진리와 사실을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표적은 바로 부활이었다.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건은 그 궁극적인 표적의 확증이었다.

마태복음 제12장에 의하면, 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 주소서 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여기서 언급하는 것도 바로 그 표적이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은 하나의 표적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분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지가 얼마 안 되므로 사람들은 그분이 방금 청결하게 하신, 상인들을 내어쫓으신 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이 건물을 46년째 짓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했다. 물론 그것은 거대한 건축물이었다. 거의 10층 높이에 해당하는



건물이었다. 거대한 돌들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덮여 있던 그것은 참으로 장엄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다. 그들은 앞으로 20년은 더 그 작업을 할 계획이었다. 그 성전을 완성하는 데는 66년이 걸릴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만에 그것을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 거대한 헛된 성전을 상상하면서 내가 이것을 3일만에 지을 수 있느냐? 라고 물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갔을 때 사람들은 그분에게 불리한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막 14:56-58). 이 구절은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에 대한 마가복음의 해석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헛된 지상 성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직도 오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은 예수님이 자기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제자들은 당시에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가노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한 적이 여러 번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서로 쳐다보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너는 알겠느냐? 라고 물었을 것이다.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그 본뜻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분께서 하신 예언 중 몇 가지를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예언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어떤 예언이 성취되기 이전에는 그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성취된 이후에야 그 예언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아, 그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말하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그분이 이전에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음을 회상하였던 것이다.

그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성서를 믿었으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던 것이다(2:22).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들은 메시아가 멸시를 받고 거부 당하고 버림을 당하다가 마침내 죽게 되리라는 성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후 그들은 메시아가 거부를 당하고 죽게 되리라는 성경을 믿게 되었다. 그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 때 그들은 성서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게 되었다. 이제 성경이 성취되었고 그것이 눈앞에서 펼쳐졌기 때문이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요 2:23).

그 때부터 그분은 이적을 행하기 시작하셨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하나도 기록해 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하신 게 분명한데, 그분 사역의 상당 부분이 그런 일로 채워졌다. 많은 이들은 그런 이적을 보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적을 보고 나서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의탁하려 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신앙이 현란하게 전시된 이적에 근거할 수는 없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분을 믿었지만 그분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을 그분께 의탁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2:24).

그들의 신앙과 신뢰가 현란하게 드러나는 이적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사람을 신뢰할 때 가지시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경이로운 사건이었는데, 그로 인해 나는 온 몸이 흥분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는 신자에게는 예수께서 자신을 의탁하실 수가 없다. 그것은 흥분된 감각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신앙이 기적적인 일에 기초할 수는 없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신앙의 유일하고 참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은 쾌감과 흥분을 느낀 큰 경험에 대해 증거한다. 나는 느낌을 반대하지 않는다. 나도 느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쾌감과 흥분을 경험한 적이 있다. 나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영광스러운 평화를 경험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울며불며 애통할 때 느꼈던 그런 순간을 나도 경험했으며, 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한 바 있다. 나도 그런 경험을 두루 하였다. 그러나 나의 신앙은 내가 얻은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내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다. 내가 놀라운 종류의 경험을 하여 흥분되어 보기도 했지만 내가 심히 비참한 기분을 가졌을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기분이 날아갈 것 같고 영광스러웠던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참으로 비참한 느낌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가 죽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의 느낌은 너무도 변화무쌍하여 거기다 우리의 신앙을 의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 더 견고한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신앙을 건축할 수 있는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신앙을 예수님은 신임하려 하실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희랍어 원문을 보아도 마찬가지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의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의탁하다’ 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도 않고 그들에게 의탁하지도 않으셨다. 그것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였기에 갖는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2:24).

그분은 그것이 알팍한 믿음이라는 것을 아셨다. 흥분된 순간에만 유지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아셨다. 거기에는 강력한 기초가 없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한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요 2:25).

그분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가롯 유다를 조심하세요 그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줄 필요가 없으셨다. 그분은 처음부터 누가 자기를 팔 자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분께 첩보를 전해줄 필요가 없었다. 그분은 사람들을 알고 계셨으며 사람들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알고 계셨다.

사실상, 제3장은 연속되는 이야기에 해당한다.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려 하나이까? 라고 물었다. 그 후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시고 이적들을 행하셨다. 많은 이들이 그 이적을 봄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다. 여기 제3장에서도 유대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온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보다 더 철저한 질문을 던진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를 필두로 이제 논쟁이 전개되는데, 때문에 여기 요한복음 제3장에서는 구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진리들이 몇 가지 나열되고 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제3장에는 공부할 것도 많이 들어 있고, 명상하고 묵상할 것도 많이 들어 있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진리가 들어 있다. 이제 제3장에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게 될 터이니, 단단히 준비를 하도록 하라.

이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행하며 교제하는 동안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성취되게 하소서. 우리 삶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소서. 이 주간 특별한 은혜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의 마음에 계시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성령께서 우리 이해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풍성하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우리 삶을 바쳐 그분을 섬기고자 하오니 참된 영적 발전이 이뤄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